

타지키스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7.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9

타지키스탄

I. 일반개황

면적	143천 km ²	GDP	28억 달러(2006년)
인구	6.6백만 명(2006년)	1인당 GDP	424달러(2006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Somoni
대외정책	대서방 관계 개선 추진	환율(달러당)	3.30

- 중앙아시아에 위치하여 구소련 공화국중 가장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생산품인 알루미늄과 면화의 수출에 의존하는 1인당 GDP 424달러 수준의 최빈국 국가임.
- 독립이후 내전(1992~1997년)을 겪으면서 경제가 파탄되었고 이후 면화 생산 및 알루미늄 산업의 호조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러시아 이외에 외국인 투자가 저조하고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2006년 3연임에 성공한 Rahmon 대통령의 철권통치가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와는 군사 기지 및 에너지 부문 투자로 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미국, 이란, 중국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G D P	16	21	23	28	34
경제성장률	10.2	10.6	7.5	7.0	7.2
재정수지 / GDP	1.8	-2.4	-3.8	-3.3	-4.2
소비자물가상승률	16.3	7.1	7.8	11.9	9.8

자료 : EIU

□ 매년 7%대의 경제성장률

- 주요 수출품인 알루미늄의 국제가격 상승과 생산증가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로 건설산업,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국외 노동자들의 송금, 임금상승으로 인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 성장을 하였고, 2005년 이후 7%대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

□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 우즈베크로부터의 가스 수입가격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외 노동자들의 송금유입 증가로 '06년 11.9%를 보였고 중앙은행(NBT)이 '06년 8월 이후 여러번에 걸쳐 재할인율을 인상하는 등 통화긴축정책을 쓰고 있으나, 수입되는 가스, 전력,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07년은 물가목표치인 7%를 상회하는 9.8%를 예상.

□ IMF의 프로그램(PRGF)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 추진중

- 동국은 IMF가 제안한 '빈곤감소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PRGF)을 충실히 수행하여 재정 및 세제 개혁을 단행하였고 2005년 1월 WTO기준에 부합하는 관세법을 입법화하였으며, 부패 척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중.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알루미늄과 면화에 의존하는 산업구조

- 2006년 전체 수출에서 알루미늄이 75.0%, 면화 9.2%, 전력 3.5%를 차지하여 알루미늄과 면화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04년 전체수출의 17.7%를 차지하였던 면화생산이 2005년이후 인프라의 부족과 기후불순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생산에 필요한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도 커지고 있음.

□ 과도한 지하경제 규모

- 국가통계위원회는, 마약 등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25%로 보고 있지만, 아랍계 Sharq센타의 조사에 따르면 GDP의 60%로 예상
- Sharq에 의하면, 동국 기업의 상당수가 이익의 1/3을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금품으로 제공하는 등 부정부패가 심함.

□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활발

- ADB는 농업, 에너지, 운송 부문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7~2009년까지 192백만 달러의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였고, 2007년 3월말현재 도시개발, 도로건설, 주거환경 개선 등 20건 프로젝트에 309백만 달러, 기술지원 프로젝트에 53건 30백만 달러, 무상(Grant)으로 5건 10백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세계은행(WB)도 개혁 지원을 위한 10백만 달러의 공여 자금 지원 승인

3. 대외거래

<표 3>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 상 수 지	-5	-57	-19	-21	-102
경상수지/GDP	-0.3	-2.7	-0.8	-0.8	-2.9
상 품 수 지	-120	-136	-323	-443	-621
수 출	906	1,097	1,108	1,512	1,736
수 입	1,026	1,232	1,431	1,955	2,357
외 환 보 유 액	112	158	168	175	281
총 외 채 잔 액	1,152	993	1,034	1,154	-
총외채잔액 / GDP	73.4	47.6	44.8	41.0	-
D. S. R	8.2	8.1	6.3	8.3	-

자료: EIU

□ 경상수지 적자 확대 전망

- 면화 수출의 감소와 함께 알루미늄의 수출증가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석유 및 가스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소비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확대될 전망.
- 외국인투자가 주로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고 우즈베크로부터의 수입하는 가스가격의 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해외근로자 송금증가로 인한 이전수지가 흑자를 보이나,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07년 GDP의 3%, '08년~'09년은 GDP의 3.4%로 예상됨.

□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활발

- 취약한 경제구조와 정부의 부정부패, 개혁의지 부족으로 FDI 유입이 부진하였으나, 최대 수력발전 프로젝트인 로군 댐(Rogun Dam) 건설과 국영전력회사인 바르퀴 토직(Barqi Tojik)의 전력설비 현대화를 추진중임.
- 그러나 최근 Sangtuda지역에 수력발전소 지분을 러시아 최대 전력회사인 UES앞 양도이후 러시아가 250백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이란이 Sangtuda-2

수력발전소 공사에 180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수력 및 알루미늄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

□ GDP 대비 외채비율은 감소

- 러시아와의 채무 리스케줄링 협약 및 IMF, WB로부터의 채무 탕감의 결과, GDP대비 대외채무가 '03년 GDP의 73.4%에서 '06년말 GDP의 41%로 대폭 하락 하였음.
 - 타지키스탄 재무부는 '07년 6월말현재 GDP의 28%(887백만 달러)로 예상.
- 그러나 '06. 6월, '07년 1월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의 차관도입 계약을 체결 하여 전체 총외채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D.S.R은 '05년 6.33%로 일시 하락하였는 바, 이는 러시아 채무 및 IMF채무를 탕감한데 따른 결과이며, '06년에 다시 8.26%로 상승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차입한 차관의 결과임.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Rahmon 대통령, 구소련 독립 이후 14년간 장기집권 중

- 구소련 독립 이후 1994년 대통령에 취임한 Imomali Rahmon은 1999년 재임하여 대통령 임기를 연장(5년→7년)하고 2003년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3연임 금지 헌법을 개정하는 한편, 주요 야당 당수들을 투옥시켜 야당 세력을 약화시키고, 시민단체 및 언론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장기독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음.
- Rahmon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2006년 11월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하여 사실상 2013년까지 통치의 길을 열었으며, 친정부 세력 결집 등으로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호관계 강화

- 러시아는 2004년 3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사실상 탕감해주고, 타지키스탄 최대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인 로군담 건설(130억 kWh)을 러시아 알루미늄 기업 Rusal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Rusal의 투자 지연과 발전용량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07. 8월 계약이 파기된 상태임.
- Rusal와의 계약 철회건으로 양국 관계가 소원하기도 하였으나, 타지키스탄은 러시아의 영원한 군사기지이고 러시아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군사, 경제적인 관계는 강화될 것임.

□ 미국과 관계개선은 요원

- 금융 지원 등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기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나,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같은 SCO(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압력으로 쉽지 않을 전망

□ 우즈베크과는 긴장관계

- 2005년 안디잔 사태로 인한 우즈베크 난민의 타지키스탄 국경지대 유입, 국경지대 내의 지뢰 문제, 국경선 확정 문제 등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과 갈등을 빚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타지키스탄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우즈베크이 관개 수로의 감소(면화 생산에 불리) 및 우즈베크의 천연가스 및 전력 수출 감소를 우려하여 비우호적인 입장임.

□ 이란과의 관계 강화

- 이란은 시아파, 타지키스탄은 수니파로 종교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최근 이란이 Anzab터널과 Sangtuda-2 수력발전소 투자를 계기로 유대가 강화되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정국 불안 가능성은 상존하나 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 높지 않아

- 1991년 구소련 독립 이후 지역 및 이념 문제로 인해 Popular Front(구 공

산세력으로 현 Rahmon 정부의 주축)와 United Tajik Opposition(UTO: 이슬람 민족주의세력)간의 1992년부터 시작된 격렬한 내전은 1997년 모스크바 평화협정(양세력간의 연립정부 구성 등)에 의해 종결됨.

- 최근 소수민족인 우즈베크인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CIS 국가 중 최빈국으로 빈곤문제가 심각하나, 국민들은 내전의 영향으로 사회적인 혼란에 대해 극히 꺼려하고 있어 인접국의 시민혁명과 같은 혁명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임.

□ 2007년 11월, 대통령궁 폭탄테러 발생

- 2005년 이후 수도인 Dushanbe에서 해마다 폭탄테러가 발생하고 있음.
 - '06년 6월 대법원 건물 근처에서 폭탄이 폭발하였고, '07. 11월 대통령궁 근처의 회의장 밖에서 폭탄 폭발
- 정부 당국은 2006~07년에 발생한 테러사건들의 책임을 불만세력과 '이슬람 테러조직'에 돌리고 있으나, Rahmon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테러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됨.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3대 신용평가기관 및 ICRG에서 등급 부여받은 바 없음.
- OECD : 7등급('06. 1) → 7등급('07. 1)
- Euromoney : 162/184('07. 3) → 163/185('07. 9)
- I.I. : 154/174('07. 3) → 163/174('07. 9)

□ ECA 인수 태도

- US Exim : 인수 불가
- Atradius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인수가능, 재량 한도 없음.
-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인수 가능, 중기는 개별

심사

- Euler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2. 외채상환태도

□ 대러시아 부채에 대해 출자전환 계약 체결

- 2004년 10월 타지키스탄 영내 러시아의 영구군사기지 설립에 합의하며 러시아와 총 3억 달러의 부채에 대해 Nurek 미사일방어 및 우주관측기지의 장기 임대권과 Sangtuda-1 수력발전소 지분으로 출자전환 계약을 체결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 4. 27 수교(북한과는 1992. 2. 5 수교)
- 주요협정: 투자보장협정('95)
- 해외직접투자(2007년 9월말 현재, 총투자 기준): 5건, 58,219천 달러
- 2006년 우리나라의 대 타지키스탄 수출액은 1,449만 달러(일반기계, 섬유사, 화학제품), 수입액은 793만 달러(면)로 양국간 교역관계는 미미한 수준임.

V. 종합의견

- 타지키스탄은 경제규모가 작고 알루미늄과 면화에 의존하는 경제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최빈국 수준인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빈곤감축 및 성장 프로그램을 추진중임.
- Rahmanov 대통령이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으나, 장기집권에 따른 사회적인 불안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과 경제, 군사적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경제적인 실리를 위해 미국, 중국, 이란과 관계개선을 강화하고 있음.
- 대러시아 채무 리스케줄링 및 IMF, WB의 채무탕감으로 대외채무 부담은 경감되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차관으로 대외채무 절대규모는 줄지 않고 있음.

며, 경제성장이 알루미늄, 면화 등 수출품의 국제시세에 영향을 받고 있고, 부정부패와 투명성 결여로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점을 들어 종전과 같이 E 등급을 유지코자 함.

선임조사역 이재홍(☎02-3779-6650)

E-mail : jhlee@koreaexim.go.kr